





이 눈에 뜨인다.

頭部는 身長의 1.5 程度이나 過大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얼굴의 輪廓이 圓形에 가깝고 無表情하게 든 큰 눈에 比하여 입이 過少하여서 여 子 的인 印象을 强하게 주는 듯하다.

頭上에는 虎頭形으로 된 帽子 같은 것을 썼는데 그 虎面은 辟 形式化 하여 鬼面에 가까우며 帽子의 後半은 두터운 虎皮로 되어서 그것이 佛

가슴과 허리의 曲線이 如實히 表面된 것이 라던지 또는 그 옷의 質感이 무언지 좀더 부드러운 材料 같기도 하여서 가죽으로 된 所謂『甲革』이란 戒衣의 一種이 아닌가도 생각되어 조금 더 檢討해 볼 問題라고 하겠다. 다만 다리와 팔의 一部는 套手같은 鐵甲製 防具를 진듯 하고 前述한 바와 같이 左手는 『持物』의 자루만을 잡았고, 右手는 가볍게 들어서 外掌하였는데 特別히 엄지손가락이 長大한 것과 兩便 것 가슴에 蓮華文의 裝飾이 붙어 있는 것

像의 後頭部를 덮고 아래로 뻗어 내려가서 어깨까지를 덮었으며 앞으로는 두가닥의 끈으로 목에다 매었는데 매듭의 고리는 오늘날 男服의 通例와는 反對로 왼쪽을 向하고 있다. 特別히 異彩로운 것은 神將의 戎衣에 걸친 天衣인데 兩肩에 걸친 天衣는 팔꿈치에서 一部를 前面에 U型으로 垂下하였다가 다시 팔꿈치에 끼워진 羽翼形의 裝身具의 끝에서 쪽 뻗어 내려서 台座에 固定되어 있는 것이다.

元來 十二神將은 藥師如來의 十二大願을 體達한 屬神으로서 이것이 十二支獸와 因제어에서 어떻게 結付 되었는지는 지금 곧 상고할 겨를이 없으나 大體로 中國에서 隋唐時代에 成立된 것으로 보는데에 큰 異論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

唐代의 副葬品으로 認定되는 土偶나, 같은 時代의 墓誌銘에 새겨진 圖像中에 이러한 十二支神의 坐像을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單純히 十二獸를 十二支의 方位에 맞춰서 配置한 것이 中間에 護法의 十二神將과 結合되어서 方位神과 護法神의 性格을 띠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며 이렇게 하여 圖像이 神格化됨에 따라 動物形에서 獸首人身이란 새로운 人獸混體像으로 發展 하였으리라고 推測할 수 있는 것이다.

LECOG氏가 先年 中央亞細亞 高昌地方의 唐代 廢寺에서 發掘한 壁 畫에 藥師如來를 中心으로 하여 四天王과 十二支神將像 등이 그려진 藥師蔓茶羅를 보면 藥師의 十二神將이 十二支獸와 結合하여 護法의 方位神으로 變質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求禮 華嚴寺 西塔이나, 慶州 遠願寺 址東西 塔 같은 新羅時代의 石塔中에 初層塔身과 上下基壇에 四天王과 獸首人身의 十二支神將像, 때로는 八部神衆 등을 配置하여 石塔을 莊嚴한 方式은 前記한 藥師蔓茶羅와 같은 뜻에서 나온 것으로 解釋하는 見解도 成立되는 것이다.

現在 南韓에서 알려진 十二支神將像은 前記 兩塔을 爲始하여 三十數 例를 들 수 있으나 詳細히 調査하면 더 많을 것으로 期待 되는 것이나

